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 제주에서의 줍깅 스티로폼, 부표, 그물, 오래돼 바스라지는 플라스틱까지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개교 75주년을 맞아 75명의 학생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 <줍깅>’에 참여했다. 줍깅은 한국어 ‘줍(다)’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며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한다. 학생들은 5박 6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를 돌며 줍깅과 도보 순례를 경험했다.

1일 차: 75명의 줍깅 단원, 프로젝트의 땀을 흘린다

“이번 줍깅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중 14번인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노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획단 서민영(미디어학 2022) 단장의 소개말을 시작으로 줍깅의 막이 올랐다.

2일 차: 본격적인 줍깅, 광치기해변과 우도 톨칸이 해변을 훑다

숙소에서 광치기해변까지의 거리는 대략 2km.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다. 검은 모래 해변이 특징인 광치기해변엔 깨진 유리조각과 폐배출이 많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지에 담았다. 60대 노부부들이 푸른색 경희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대학 시절엔 먹고살기 바빠 이런 활동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젊은이들이 국토를 가꾸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도 톨칸이 해변으로 가기 위해 선착장으로 출발했다. 톨칸이 해변은 몽돌해변이었다. 쓰레기가 많아 광치기해변, 수마포해안에서보다 몸을 더 많이 썼다. 폭우를 맞으며 바위틈에 박힌 쓰레기들을 최대한 뽑아냈지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박힌 것도 많았다. 활동이 끝나고 줍깅 전 몽돌 해변의 사진과 이후 사진을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났다. 모두가 뿌듯한 마음을 간직한 채, 우도를 떠났다.

3일 차: 도보 순례 시작, 왕복 20km로 고됐지만 아름다웠던 해안도로

혼인지공원으로 향하는 도보 일정이 있는 날이다. 숙소에서 혼인지공원까지는 10km. 쉬지 않고 걸으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함께한 학생지원센터 선생님들은 직접 음료수와 물을 가져와 학생들을 응원했다. 기획단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워터밤’처럼 물을 뿌리며 더위를 날려줬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자주색과 파란색의 그라데이션을 이룬 수국밭과 도꼬마리밭을 지나갔다. 다만 갈 때와 다르게, 온평리 해안도로를 따라 숙소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아름다운 제주 해변과 검은 현무암이 합쳐진 모습은 절경이었다. 해안도로에는 황근이 만개해 있었다. 해안 쪽 현무암 사이사이에는 섬채송화가 사이사이 피어 있었다. 그 뒤로는 푸른빛의 바다가 검은 해안과 어우러졌고, 그 배경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졌다. 그렇게

건넌 중, 평상에 앉아 약주를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기도 했다. 어느 대학교에서 왔냐고 묻더니, 대뜸 캔맥주 10병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농담을 던지는 분도 계셨다.

4일 차: 에코랜드의 아름다웠던 꽃, 녹차밭에서 걱정 없이 녹명

에코랜드에 가는 날이다. 에코랜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테마로 운영하는 공원이자. 버스 기사는 “중국에서 넘어온 쓰레기를 포함해 바닷가 쪽에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에게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에코랜드에 들어 가려면 열차를 타야 했다. 호수를 지나 앞을 벌리고 있던 자귀나무가 인상적이었다. 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철길을 따라 핀 안개꽃, 그리고 이름 모를 노란 꽃도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제주도의 한 녹차밭에 갔다. 풍력발전소 뒤로 광활한 녹차밭이 펼쳐졌다. 녹차밭에서는 각종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풀벌레의 낭만적인 소리와는 다르게 옆에서는 농부가 엄청난 양의 농약을 기계로 뿌리고 있었다. 바람을 맞으며 녹명(녹차밭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기)하는 시간을 보냈다. 녹차밭 밑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 잠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5일 차: 다시 줍깅 돌입! 해신사와 소금막 해변, 표선해수욕장을 치우다

어제의 관광을 뒤로하고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줍깅 활동을 하는 날이다. 첫 줍깅을 진행하는 해신사 부근 해변으로 향했다.

해신사 부근 해변은 현무암이 깔린 해변이었다. 해변의 일부 플라스틱은 방치된 지 너무 오래돼 집자마자 완전히 바스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해신사에서 제주 해녀가 해산물 채집하는 것을 봤다. 그 장소에서 먹거리가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김기민(경영학 2023) 단원은 “여기는 진짜 너무 더럽다”며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만 좀 버렸으면 좋겠다”며 화난 얼굴을 하며 말했다. 소금막 해변으로 이동했다. 소금막 해변은 모래 해변이지만 갯벌과 흡사했다. 다행히 해신사 해변보다는 쓰레기가 적었다. 간혹 담배꽂초, 기성품 포장지 일부가 보이기도 했지만 주를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줍깅 활동이 끝난 시각은 오후 3시 30분. 제주도에서의 줍깅 활동이 모두 끝났다. 이를 자축하기라도 하듯 바다에 몸을 던졌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했다. 줍깅 프로젝트를 기획한 최현진 서울 미래혁신원단장과 황수현 국제미래혁신원단장이 단원들과 함께했다.

6일 차: 힘들었지만 보람찬 활동을 뒤로한 채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마지막 일정에 함께하기 위해 10시 숙소 로비에 모였다. 두 미래혁신원단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길었던 줍깅 프로젝트는 모두 끝이 났다.



우도 톨칸이 해변에서 줍깅 활동이 끝났다. 쓰레기를 줍기 전 해안(좌측 사진)이 줍깅 활동 후 깨끗해진 모습(우측 사진)이다.



검은 모래 해변이 특징인 광치기해변엔 깨진 유리조각과 폐배출이 많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지에 담았다.



2시간 30분을 걸어 도착한 혼인지 공원에서 점심식사 후 단원들과 함께 약간의 휴식을 즐겼다.



해신사 부근 해변은 현무암이 깔린 해변이었다. 우도 톨칸이 해변보다는 덜했지만 만만치 않게 쓰레기가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유리병 조각이 많았고, 버려진 부표와 폐배출도 심심찮게 보였다.